



## JESUS VISION CENTER

*Joel 2:28*

Later, I will give my Spirit to everyone.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Your old men will have dreams,  
and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

류동준 . 유소영 선교사

2022년 1월

강변교회

Mission Letter



## Shalom~!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기 1:16~17)

몇 년 전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인생은 해석의 문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전 지구적인 재난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이 처한 상황은 똑같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컵에 물이 반 정도 남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낳습니다.

위의 룻기 말씀은 베들레헬을 떠나 모압 땅에 거주하던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자신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각기 친절으로 돌아가라 권면했을 때 보인 룻의 반응입니다. 상황을 보면 나오미의 남은 인생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베들레헬에 든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도망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두 아들이 있으니 두 아들을 의지해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결혼시켜 며느리들도 얻었으니 삶의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의지하던 두 아들도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나오미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절망적인 현실만 남은 자신과 살아야 하는 두 며느리를 친절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아직 젊은 두 며느리의 남은 구만 리 같은 인생이 불쌍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 각자 자기 친절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것이 슬펐지만 자기 인생을 생각하며 자기 고향 땅 친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의 인생에 그러한 곤경이 찾아온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유일한 길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바라고 기대하시는지 생각해 봅시다.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밖에’가 아닌 ‘반이나’라는 믿음의 해석, 긍정의 해석을 기대하십니다.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위기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 트머언다엣 마을에서의 첫 예배

캄보디아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코로나의 위기에 빠진 나라가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 캄보디아의 관광수입은 캄보디아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관광수입이 코로나로 인해 평소의 10프로도 안 되는 수준으로 확 줄어들었으니 속히 관광을 재개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발표되는 훈센총리의 담화문을 보면 그것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하는 것,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백신패스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제는 모든 것이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모든 다중 이용시설을 오픈하고 혹시 그러한 시설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더 이상 해당시설을 폐쇄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발표가 충분히 그러한 의중을 읽을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오미크론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코로나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듯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저와 제 가족들에게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또 다른 면에서는 복음 전파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화 됐으니 이제는 본격적인 사역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들어서면서 주일예배를 드리기로 시작했습니다. 1월 2일 첫 주일에 드린 첫 예배는 제게 감격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찬양을 인도하고 저는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처음 듣는 찬양을 따라하고 부족한 설교이지만 말씀을 듣는 아이들을 보니 마치 첫 애를 낳고 품에 안았을 때의 감동과 같은 큰 감동과 은혜였습니다. 아직은 처음 듣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말씀이 아이들 가운데 심겨지고 싹이 나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트머언다엣의 예배가 모든 마을 주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예배가 되도록, 아직은 유창하지 못한, 더듬거리는 설교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아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설교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월과 12월은 캄보디아의 겨울이었습니다. 이때는 밤 중 최저 기온이 보통 23~4도 이고 간혹 20도까지 떨어집니다. 물론 낮에는 31~2도로 덥지만요. 그래도 바람이 불 때는 낮에도 추운 듯합니다. 저희는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날씨인데도 캄보디아의 사람들은 춥다며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외투를 입고 다니기도 하구요. 캄보디아에 온 첫 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전 대학생 때 한국에서 열렸던 세계 선교대회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륙회의가 열리는 충현교회에서 봉사를 했었는데 그 때 충현교회 앞마당에서 그 한 여름에 어디서 구했는지 아주 두툽한 파카를 나누어주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때가 여름 중 가장 더울 때였는데 파카를 구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대륙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것을 입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더위에 두툽한 파카를 입고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때의 기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에 올 때 겨울 옷을 다 가져올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삿짐을 보냈을 때가 1월이었는데 아직은 겨울이 다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더운 나라에 가는 것이니 갈 때까지 입을 옷 두어 개만 남기고 다 정리를 해버렸었거든요. 이삿짐을 보낼 때 모두 보내서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나눠줄까도 잠깐 생각했었는데 더운 나라 사람들이 두터운 옷을 입을까 싶어서 모두 정리를 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판이었습니다. 오래전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한국 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파카를 입고 다녔던 것처럼 이 나라 사람들에게도 겨울 20~25도의 기온이 춥게 느껴지기 때문에 두터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역하는 트머언다엿 마을 사람들은 추위에서 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친척들이 계절이 바뀌면서 옷 정리를 했이라며 보내온 것들을 계속해서 나눠주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체국 택배 5호 박스(48x38x34)로 13~4 박스 정도 나누어 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갈 때마다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혹시 옷 없느냐 물어봅니다. 이 나눔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캄보디아도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감염이 확진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상당수의 사람들이 마스크조차 쓰지 않습니다. 가족들 모두 백신 접종을 했지만 최근 뉴스에 따르면 중국산 백신은 부스터 샷으로 화이자 백신 같은 mRNA 백신을 맞아도 예방율이 다른 백신들에 비해 훨씬 낮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 질병에도 비싼 병원비와 믿고 갈만한 병원이 없어 더욱 걱정입니다. 지난 성탄절 하루 전에는 아들 예원이 장염으로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려다 성탄절 아침엔 급기야 손발이 오그라드는 증상까지 있어 급하게 그나마 믿을만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성탄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는데 저희의 건강과 안전을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뜨러베앙로까 마을,  
트머언다엣 마을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캄보디아 정부의 방역 방침은 2인 이상이 모인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인 프놈펜 사람들도 그런데 사역지인 시골 마을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마에 열패치를 붙이고 있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음에도 주민들은 무심경한 듯합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특별히 캄보디아에도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로부터 안전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역을 위해

마을 이장님 집 옆에 있는 공터에서 주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대략 40~50명의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 각 사람의 심령에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영어 교육을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꿈꾸어 가는 비저너리가 되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올해 교회의 사역비 지원이 사정상 어렵게 되었는데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정의 공급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센터를 위해

센터 설립을 위해 계속 기도하면서 적당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토지를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곳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임대하는 곳은 없고 매매하는 곳은 중국 사람들의 영향으로 땅값이 말도 안 되게 올라 그거 기도밖에 할 수 있는게 없는 상황입니다. 몇 곳 알아본 곳의 땅값이 대략 15m x 30m 정도의 땅이 25,500불 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땅을 매입해서 센터를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